간호학생의 생명에 대한 대도 유형 분석: Q-방법론적 접근

염영권・충여신**

1. 서론

1. 문제제기

"생명"이라는 말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명의 적절,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중 등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비롯하여 건강관리의 목표이거나 다른 목표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는 치가진 현대 시대, 심지어는 치가진 부재 시대라고 알려진 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상에서 전제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가치관과 문화의 관점과 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약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생명관과 유교나 불교의 평등주의적 생명관 등 서로 상반되는 가치관들이 동시에 하나의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가게 현대에 는 인간존중, 가치주의, 인권호흡기의 어떤 인위적인 생명의 중요나 전인의 가능성과 생명의 위험을 수반한 병원 담당자와 보건진료,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서구의 영향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보다는 생명의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이지만 현장에 대한 개인의 해석은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간호사 개인이 생명에 대한 소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자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적극적이고 대도, 그리고 복잡한 현대적인 도덕적 문제의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간호학생들이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간호교육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1) 임상 간호와 관련되는 생명에 대한 도덕적 논의를 고찰 정리한다.
2)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생명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유형을 분석한다.
3)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유형에 대한 명명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가치론의 유형: 의무론과 공리주의

규칙에 의거한 도덕 혹은 법칙론적인 접근방식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의무론은 “어떤 행위가 적절한 도덕 규칙(이 경우에 그러한 규칙은 반드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 부합될 경우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들 일부에서는 그 행위가 틀리다”(Brody, 1988)라고 주장한다. 가장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형의 규칙들 가운데에는 어떤 선택에 대하여 본질적인 가치(홀턴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예로서는 삶인, 가짓말, 가치의 사생활에 대한 적절한 은공을 규재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의미는 어떤 행위가 갖는 특정 가치로 그것으로 인해 그 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Brody, 1988).

의무론은 기독교에서 10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비롯한 구칙의 기원이 무엇이며 본질적인 가치가 부여된 규칙을 지키려 한다는 윤리상의, 최초로 체계화한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라 할 수 있다. 칸트는 행위에 관한 모든 길의(Immanuel)를 기초로 하여 만아의 경건적인 절명법(categorical imperative)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기본이 되는 의무론들이 집중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 철학적인 태도의 취합으로써 의무론이 많은 반론에 부딪히며 로스(W. D. Ross)는 의무론의 일반적인 논점을 개선하고자 '조관의 의무론(prima facie)'을 제안하였다. 그는 체계적(actual) 의무와 조관(primae facie) 의무, 즉 실제로 옳은 것이 조관으로 옳은 것을 구분하였다. 로스는 우리가 언제나 행해야 하는 정체적이고 부정적(conditional) 의무가 아니라 그보다도 도덕적으로 비중이 더 큰 다른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 한, 즉 조관(conditional)로 우리의 실제 적의무가 되는, 그런 의무에서 선택의 의무가 될 수 있는 영향을 갖는 상대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록 더 중대한 의무에 일시 양보한다 해더라도 이런 의무가 갖는 의무성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 무어의 수행보다는 다른 식으로 보상, 변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도 그만한 안해도 그만한 의미에서 상대적 의무는 아니다(홍여신 등, 1992 참조).

반대로 결과주의라고 불리는 공리주의에서는 “한 행위의 결과 그 결과의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으로서 올바른 행위의 최선의 결과의 가치인 행위”(Brody, 1988)라고 주장되고 있다. 결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군가의 이익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 결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정적 공리주의, 솔론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등이 공리주의의 이중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지에는 이론으로서의 주입이 발생하지 않아 바라해 보이는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생명의 개념적 이해

1)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개념적 우선 모호사의의로서의 인간과 다른 종(種)인 동물의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는 개와 사람에 맞게 의무에 방해 없음을 경우에 놀라 구조하는 것이 물가당하단 마다는 사람을 구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옳은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대기도는 기독교가 출현한 때부터 시작되었고 없었다. 기독교문인들이 인간 생명의 중요성을 주장한 계발에 특별한 신학적인 통가가 있었다. 인간의 생명을 뒷받침 모든 것은 물가하며, 영원히 행복이 예측하는 기도를 한다는 영계지(永遠界)가 존재하는 통가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논쟁은 아마도 새로운 의문에 대해 창조되었기에 그의 소유이. 인간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 때와 우리가 죽을 때를 결정하는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두세째 이유이다. 반면에 인간이 아닌 동물은 서대(世代) 1장 29절과 3장 1절에서 기
록된 대로 하지만 인간에게 다소리라고 명한 것으로
받아졌다.

유럽사회를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세기 동안,
이같은 교리에 근거한 윤리적 태도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유럽문화의 도덕적 정신의 일부분이 되었다. 오늘날
그같은 교리는 더 이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고 있지만, 이것들이 발생하기까지 데노우키 신인
종족이 유아호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구의 근본
적인 신념과 어우러져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Singer,
1991). 그러나 어떤 존재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옳고
그림이 그 존재의 종(種)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자기 인간
의 구성원들을 더 존중하는 인간주의자들(예: 베이비 흑
인보다 우월하다가, 제로만 민족은 우대인보다 우월
하다는 주장)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홀모사피엔스(homo sapience)로서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가
지나는가 살펴보자. 인간의 생명이라는 말에서 “인간
(human)”이라는 어휘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홀모사피엔스(homo sapiens)로서의 인간이
다. 어떤 존재가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인가 여부는 살
아있는 유기체의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성질을 검사
함으로써 간단하게, 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는 인간인 무보에 의해 배아된 태아가 존재하게 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이 어둠이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아
주 전반적으로 처음을 가진게 “식물인간”도 인간임
에 틀리없다.

둘째, 인격체(person)로서의 인간이다. 인격체란 자
의식, 자기통제, 이해감, 가혹감, 타인과 관계되는 능
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 등의 특성을 가
진 존재를 의미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대가, 그전
호모사피엔스는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면 성질은 특정적으로 가교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직 활
동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아나 신생아, 식물인간
의 상태에 있는 환자, 둘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접
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여지지 않는지, 이것은, 즉
바로 위에서 언급한 태아나 신생아,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인격
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Singer, 1991).

그렇다면 단순히 감각적인 존재와 구별되는 합리적이
고 자의적인 존재의 생명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자의적인 존재는 자신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는 개별
적 존재임을 알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존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 있을
것”(Singer, 1991)이므로, 인격체의 생명은 빼앗는 것
은 다른 존재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

미국의 철학자 토리(Michael Tooley)(Singer, 1991
에서 제목 해는)는 이것 기 같은 주장을 강조하여 인격체
는 ‘생명에 대한 권리(right to life)’를 가진다고 하였
다. 그는 “기본적인 직관에 따르면, 권리가 점점될 수 있
는 어떤 것이며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대한 개인의 권리
t를 침해하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욕망을 침해시키는
것이다. 쉽게 들어서 베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림 때 나는 우선 그것을 나를로부터 빼앗지 말
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그 의무는 무조건적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베가 그것에 상관없는 욕
망을 가지고 있음에 달려 있다. 만약 베가 내의 차를 빼
앗지 않게 했으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나는 그럴
게 함으로써 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
하였다.

합리적이고 시대적인 존재는 때에 ‘선택하고, 결정
하고, 경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는 자주성을(autonomy)이라 불린다. 의무론자는 인
격체의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망을 선택하지 않는 인격
체를 죽이는 것은 그 인격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반대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자주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려면 ‘생명의 보호해야 한
d는 간암환자 신진인들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임으로 선택적 기법이 실현 태
아의 임신중절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 태아
가 출생후 무리하게 무한의 질을 무게로 주장되어 왔다.
“생명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가 일정 언어와
생명의 질 분야에서 동등한 시대를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다. 이는 현재의 휴대성이 체계적 정량을 근본적으로
최우선하여 현재의 휴대성이 정량을 추구하게 된 것과
따라서 사망의 예의 이론적 근거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망의 예의,
체계적 정량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더욱 실
의 길이 길어지지 않아야 소생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거나 심지어는 보다 적절적인 안락사용 시기는 느리

심의 질에 관한 도덕적 측면은 두 가지 곡선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① 결과주의의 윤리학에서 기초하고, ② 가치있는 자질의 결과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을 상대적이고 불공평하게 구분하며, ③ 투자적 그 생명이 실제로 경청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이 질이 총합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인간 생명의 보존과 보호는 최우선적인 의무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규범을 용호한 다. 또 하나의 관점을 반대로 생명의 신생상의 도덕적 근거를 두고 ④ 전형적으로 의무적 윤리학에서 기초하고, ⑤ 인간 생명의 측면과 부합하게 내재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각 인간 생명에 독립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⑥ 흔히 인간 생명은 보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토대로 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신념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⑦ 인간 생명은 유지되고 보호되며 생명은 매우 저차 지정당 없으나 있는 배정할 수 없다는 규범을 용호하고 있다(Singer, 1978).

2) 생명의 본질에 관한 논의 및 생명권 생명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어떻게 보느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기와 다르다. 예를 들면 생명은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에는 그 이유로 무엇이든 생명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도 생명에 사례적이기 때문에 부여하는 사람들은 화자의 생명이 갖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가치에 따라 생명의 존중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생명의 신생성이 옮기는 본질학적 혹은 인간생명을 보존하지 않거나 부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행동은 "그르다(wrong)"로 주장하는데 구체적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 생명의 신생성은 그 존재에 근거되는 어떤 "가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것,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의 정도와, 기능적인 이익, 실용적인 유용성, 등과 같은 만은 인간의 신생성은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생명의 신생성의 원리는 우리사회의 기본이 되며, 이 원리를 부여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 게 할 것이다.

③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심수를 다리치지 않아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Law Reform Commission of Canada, 1987).

 생명에 대한 가치관은 종교의 영향도 지대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례적인 종교가 할 수 있는 기독교, 불교, 유교의 생명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 기독교인 전통적인 생명관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무는 종교적인 규칙이다. ②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의무가 논리가 아니다. ③ 자살이나 인가사건과 같은 행위는 급히해야 한다. ④ 살아있는 인간에게 비슷한 정신이거나 위험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납은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 자료, 사회에의 유용성, 아니면 다른 어떤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생명을 결정적인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인간을 우월한 존중을 경험할 존재로, 또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많은 사람의 적은 사람이 분명하게 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기록도 중요하게 할 것이라는(Jewish commendium on medical ethics, 1987).

불교의 생명관에서는 둘례전에 기초하여 만물의 생명을 평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인은 사후에 귀무격자에 태어나고, 악인이 다른 지옥에 놓여있다고 하는 사는, 인도에서는 이에 불교 발병 수 년 전 아타르바 베타 시대부터 브라흐마나 시대에 걸쳐서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혼자서가 까지 발견하지는 않았다. 육체로는 이성 시대에 걸쳐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죽음으로서, 헤안, 人, 地獄 등 여러 가지 세계로 가치가 있는 것의 의미는 것이다. 불교에서 삼왕(三: 欲界, 色界, 無色界)과 땅, 地獄, 蝙蝠, 惡鬼, 畜生, 阿修羅, 人間, 天人)에 걸쳐서 운회보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라는. 이 운회보는 생명 있는 몸을 발생, 3, 3 개 난 진인 우파나이드 시대로 생각된다(水野宗玄, 1972).

불교에서는 운회보로 인하여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하여가 가족에게 대하거나 향후로 살생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Conze, 1959). 즉 오늘날 인간이 내
일은 못해도 되어나오다 다른 존재도 빠져날 수 있을
قود 아니라 가동하게 하는 다른 동물의 자식으로 어어날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것이다. 물교에서 염려한 이유
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교의 대표적인 생명관은 孔子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孔子는 "禮記"에서 "죽은 일이 다음인데 정발
죽은 것으로 다룬다면, 그것은 의도한 것이니 그렇게 해
서는 안된다. 또 죽은 사람으로 살아 있는 사람처럼
d대우한다면, 그것은 知慧으로든 것이니, 그렇게 해서
도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荀子"의 禮論에는 "禮
당 산 사자라 죽은 사자로 생각하는데 있어서 신흥하고
있는 사상이 사라진 사물이라,의사로서 사물의 정정이
다. 일반 사상과 같기 좋은 것으면, 사람의 논리두는 것을
다. 실체로 삶이 살아있을 때에는 편하고 죽었을 때에는
편하고만 한다면 이것은 知欲이 있을 때에는 존
경하고 知欲이 없을 때에는 뒤가凼을 든산이 죽은
것은 아이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
도 여기에 있다"(선우달, 484에서 제한용).

3) 생명 및 죽음. 삶과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생명
의 윤리학적(生醫倫理學的) 문제들

생명과 관련된 주제로서 건강관리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는 의학적 도덕을 범위로 다음과 같이 본 장에
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에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각 문제에 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논의보다는 문
제의 다양성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① 인간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은 언제 사
작하는가?
-정자와 난자의 수정식부터인가. 아니면 태어난 자
음 느껴질 때, 태어나 영혼을 갖게 될 때, 태어날 때, 신생아
가 태어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인가?
② 인간 생명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
-인공수정에 의한 인상의 문제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이 문제
-인공정자제조의 문제
③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도덕
적으로 가능할까?
-인공임신중절이 정당화되는 근거: 의지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 태어의 출생 후 삶의 질, 사회적경제의
공리를 위한 우생학적 측면(부모의 지능지수), 불
법적인 입신(예: 강간 등).
-연락사가 정당화하는 근거: 당사자 여성이 삶과
질(동통, 의식결여, 고령 등), 가족의 삶의 질(예: 경제적
문제, 사회, 외부의 가해。
-아바시의 반해, 수용적, 소극적, 적극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가족의 의사에 따라, 의료
진의 판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명권의 사유물: 체계나 어느 환자에게나
시행해야 하는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하는가, 가족
의 의사에 따라 하는가, 의료진의 판단하는
가.
① 죽음의 정의: 생체, 의사의 정의 및 기준에 관한
논의.
② 인간 생명의 가치: 조기전기로 동등하게 신생
하는가, 삶의 정에 따라 다를가, 주위에서 필요하
는 사람의 유무나 수에 따라 다를가, 사회에 기여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가.

(Singer, 1979; Thiroux, 1980; Benjamin & Cu
rris, 1986; Carrick, 1985; Myiskeyes, 1982; Mu
nson, 1983; Shannon, 1979; Brody & Engelha
rdt, 1987; Brody, 1988; 한국 가톨릭 의사회, 1984
; Chinn, 1979; Yarlings & Mcelmurry, 1983; Fr
orner, 1882)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에 대한 개요

본 연구에서는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청안되어
계속 발전해온 조사연구방법으로 인간의 가치 및 태도, 신념사와 같은 주관성을 체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Methodology를 적용하였다. 이는 현상의 분석에 초
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Q-법론은 자아
이론과 함께 concourse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여기서
concourse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논의의
총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
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 전달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홍규, 1991).

이 방법은 Concourse의 틀 속에서 Q-sorting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대상자가 스스로의 주관성을 체제적으로
조망으로 투시하여라 함으로써 체제적 자료를 과학적이
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Q 방법은 사람
을 변인으로 하여 이들 주관적 인식 체제를 밝혀지는
Q 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발목을 벗
(표 1) Q표본으로 표집된 진술문 내용

<table>
<thead>
<tr>
<th>번호</th>
<th>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생명이란 신체의 기능과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td>
</tr>
<tr>
<td>2.</td>
<td>생명이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서로 상호연관하여 형성되었다.</td>
</tr>
<tr>
<td>3.</td>
<td>생명은 정신적인 것이다.</td>
</tr>
<tr>
<td>4.</td>
<td>모든 생명에는 영혼이 들어 있다.</td>
</tr>
<tr>
<td>5.</td>
<td>인간이 죽으면 후세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td>
</tr>
<tr>
<td>6.</td>
<td>무생물도 그 존재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인다면 생명을 지니다고 할 수 있다.</td>
</tr>
<tr>
<td>7.</td>
<td>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 무한하다.</td>
</tr>
<tr>
<td>8.</td>
<td>아우라의 진화의 단일자체로는 살 수 있는가 한다.</td>
</tr>
<tr>
<td>10.</td>
<td>생명의 말은 죽음이다.</td>
</tr>
<tr>
<td>11.</td>
<td>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록과 같은 신념이다.</td>
</tr>
<tr>
<td>12.</td>
<td>생명은 이 세계가 소멸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할 영원한 복의 것이다.</td>
</tr>
<tr>
<td>13.</td>
<td>나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고 있다.</td>
</tr>
<tr>
<td>14.</td>
<td>생명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이다.</td>
</tr>
<tr>
<td>15.</td>
<td>생명의 기원은 알 수 없다.</td>
</tr>
<tr>
<td>16.</td>
<td>과학의 발전에 의해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td>
</tr>
<tr>
<td>17.</td>
<td>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이다.</td>
</tr>
<tr>
<td>18.</td>
<td>인간은 노동하는 자녀를 얻어야야 진정한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td>
</tr>
<tr>
<td>19.</td>
<td>살아 있는 것을 그 생명체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td>
</tr>
<tr>
<td>20.</td>
<td>인간의 생명이 생명의 모든 생명에 가능하다.</td>
</tr>
<tr>
<td>21.</td>
<td>출산에 생명이 가는 일은 조직의 태아 생명의 가지보다 더 크다.</td>
</tr>
<tr>
<td>22.</td>
<td>인간의 생명은 모든 생명이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의 뜻이다.</td>
</tr>
<tr>
<td>23.</td>
<td>신체의 기능상태가 이며에서 줄어들어 생활한 삶을 살게 한다는 생명의 원조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td>
</tr>
<tr>
<td>24.</td>
<td>나는 신체의 기능상태가 이며가 가족들에게 제한적으로나 정조적으로 교통을 주게 된다면 인생을 원한다.</td>
</tr>
<tr>
<td>25.</td>
<td>이로인한 수포를 삶이 해야 한다.</td>
</tr>
<tr>
<td>26.</td>
<td>자연스런 죽음을 맞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td>
</tr>
<tr>
<td>27.</td>
<td>사람의 삶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생을 인정해야 한다.</td>
</tr>
<tr>
<td>28.</td>
<td>최후의 자동성이 매우 빠르고 정교한 고통이 따른다 80세 노인이라면 인생의 급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부양가족이 아닌 40대 가정의 경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td>
</tr>
<tr>
<td>29.</td>
<td>삶 가시하는 환자까지 의사의 의무가 되지 않는 것이 옳다.</td>
</tr>
<tr>
<td>30.</td>
<td>생명이가 기형의 정도가 심하여 1년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교통수شه에서 살게하기보다는 타라니 약식을 시키는 것이 다타.</td>
</tr>
<tr>
<td>31.</td>
<td>질병발기 환자나 연구가 있다면 그 환자의 치료에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이가가 치료를 느낄 수 있다.</td>
</tr>
<tr>
<td>32.</td>
<td>임신의 합리화는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td>
</tr>
<tr>
<td>33.</td>
<td>치료의 종류는 달라질 수 없게 인도화된 것은 그 로인은 인공기형을 해야 한다.</td>
</tr>
<tr>
<td>34.</td>
<td>체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공기형을 하는 것이 더 낫다.</td>
</tr>
<tr>
<td>35.</td>
<td>시험하는 기회가 아니라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td>
</tr>
<tr>
<td>36.</td>
<td>질병의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생명의 재조직에 있어서는 희생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양구와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td>
</tr>
<tr>
<td>37.</td>
<td>이러한 적절한 처방법도 없고 예후가 미치질 것으로 알려진 AIDS로 진단받게 된다면 나는 자살하였다.</td>
</tr>
</tbody>
</table>
2. 표집방법

Q 방법론을 이용한 조사연구에서의 표집과정은 Q-statement 표집을 위한 Q-sampling 과정과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P-sampling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Q-sampling 과정은 다시 Q-sample의 모집단이 다를 수 있는 Concourse의 산출과정과 Q-statements 조사과정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 Q-sampling
   (가) Q-population의 구성

Q 방법론에 있어서 Q-표본의 모집단은 Concourse으로 표현되어 이러한 Concourse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대상, 개념 등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을 각각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진술들의 세계로 구성된다.

Q 모집단인 Concourse유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간호응급처사 비유해화 생애의학적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명에 관한 도덕적 문제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고, ② 한국에서 대표적인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 기독교, 유교적 생명관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①의 내용은 ‘II. 문헌고찰’에서 실시하였음, ③ 학생 및 일반인을 면담하여 “생명”이라는 어휘와 관련이 있는 성적인 대학이나 대학외의 대학인생의 정체는 어떤 것인지 생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조사하였다(총 160명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면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적용은 Q-population 적용내용으로 포함시킴).
   (나) Q-sample의 선정

성명(①, ②, ③)의 내용으로 100여개 정도의 진술문을 모았고, 다음과 진술문의 합성성을 간호학, 철학, 의학자(박사과정 학생 및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여 50여개의 진술문을 최종 문항으로 선택하여 각 진술문 별로 카드를 작성한 다음, 시험 간이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여 중복여부 및 표현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10여 차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Q 표본으로서 다음과 같은 37개 진술문을 최종 선택하였다(표 1 참조).

2) 연구 대상(P-sample)

① 연구목적의 방법론 대상학생에게 설명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동의에 실시하였는데, 동의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다(연구방법에 대한 개요에서 이미 밝혔듯이 Q 방법론은 R 방법론과 달리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자 개인적인 주관을 조사분석하는 것 이므로 대상자의 대표성을 위한 표집방법을 특별하게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는 입학요출하였으며 학생의 참여여부에 대한 동의를 중시하여 참여시켰다.

② 3년제 간호대학 간호학생 27명(1학년 : 8명, 2학년 : 10명, 3학년 : 9명)
③ 4년제 간호대학 간호학생 14명(3학년 : 7명, 4학년 : 7명)

3. 자료수집

① Q 방법론 연구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의견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술문이며 각 상호간의 생각에 대해 의의를 얻어 설문지에 적어 담아 연구IfNeeded의 성격을 반영하는 문헌방법(Kerlinger, 1973)이 상정되어 실험에 제안됨으로서, 카드로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진술문을 잡은 후자 자신의 생각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인지한 부분에 강체적으로 진술 카드를 순서적으로 평가, 분석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진술문을 잡은 후 풍경(+, 공급(0), 무의미(1)로 크게 3 부분으로 각각 10점 가장 급성하는 (0) 항목부터 차례로 글라 분류를 진행하여 종합 부분으로 오게 하며, 역시 가장 급성하는 (-1) 항목에서 문항을 진행하여 종합 부분으로 오게 하여 Q-sorting을 끝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카드 첫 번째 개수(그림 1)와 같이 표시하도록 하였다.

② 가장 반대하는 것과 가장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하여 메도하거나 자료수집용 풍속에 응답자 가 직접 시각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③ 대상자 1인당 자료수집용 풍속 1매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그림 1] 카드 배열 방법

<table>
<thead>
<tr>
<th>7점</th>
<th>6점</th>
<th>6점</th>
</tr>
</thead>
<tbody>
<tr>
<td>4점</td>
<td>3점</td>
<td>3점</td>
</tr>
<tr>
<td>2점</td>
<td>-3</td>
<td>-4</td>
</tr>
</tbody>
</table>

(각국한대) (중립) (각국찬성)
4. 자료분석

① 응답자의 카드 배열에 대하여 적극반대를 1점으로 하고 적극지원을 0점으로 하여 〈표 2〉의 그림 점수를 계정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통계분석하였다.

② 유형의 특성 해석: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특성을 해석하였다.

③ 유형 명명: 각 유형의 특성에 중심으로 하여 전체 유형의 일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명명하였으며, 명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호학(2명), 산호분리(1명) 및 철학과 윤리학(1명) 전공자의 자문을 구하여 수

정보됨하였다.

〈표 2〉 Q 분류점수 배점표

<table>
<thead>
<tr>
<th>성수</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r>
</thead>
<tbody>
<tr>
<td>카드수</td>
<td>2</td>
<td>3</td>
<td>4</td>
<td>6</td>
<td>7</td>
<td>6</td>
<td>4</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IV. 결과의 분석과 논의

본 연구 대상 간호학자들의 생명에 대한 태도 유형을 요인분석한 결과 나타난 유형은 4개이며, 각 유형에 속하게 된 응답자의 구성 및 응답자들 각자에 대한 가중치는 다음〈표 3〉과 같다.

〈표 3〉 P 표본의 유형별 인자 가중치

<table>
<thead>
<tr>
<th>TYPE1 (N=11)</th>
<th>TYPE2 (N=12)</th>
<th>TYPE3 (N=9)</th>
<th>TYPE4 (N=12)</th>
</tr>
</thead>
<tbody>
<tr>
<td>var.1 .5262</td>
<td>var.2 1.2043</td>
<td>var.4 .4093</td>
<td>var.3 .2440</td>
</tr>
<tr>
<td>var.5 .5494</td>
<td>var.6 1.0649</td>
<td>var.23 .3285</td>
<td>var.11 .2177</td>
</tr>
<tr>
<td>var.8 .2345</td>
<td>var.7 1.931</td>
<td>var.24 .1369</td>
<td>var.13 .5610</td>
</tr>
<tr>
<td>var.9 .1794</td>
<td>var.14 .6072</td>
<td>var.17 .2740</td>
<td></td>
</tr>
<tr>
<td>var.10 .2629</td>
<td>var.16 .8030</td>
<td>var.22 .3144</td>
<td></td>
</tr>
<tr>
<td>var.12 .2681</td>
<td>var.18 .6616</td>
<td>var.26 .1465</td>
<td></td>
</tr>
<tr>
<td>var.15 .4713</td>
<td>var.20 .3879</td>
<td>var.28 .0989</td>
<td></td>
</tr>
<tr>
<td>var.19 .5537</td>
<td>var.21 .7103</td>
<td>var.29 .1437</td>
<td></td>
</tr>
<tr>
<td>var.27 .6213</td>
<td>var.25 .2971</td>
<td>var.32 .2294</td>
<td></td>
</tr>
<tr>
<td>var.30 .6455</td>
<td>var.38 .7337</td>
<td>var.35 .2543</td>
<td></td>
</tr>
<tr>
<td>var.31 .9140</td>
<td>var.39 .8875</td>
<td>var.36 .3072</td>
<td></td>
</tr>
<tr>
<td>var.33 .2511</td>
<td>var.40 .1011</td>
<td>var.37 .1584</td>
<td></td>
</tr>
<tr>
<td>var.34 .7970</td>
<td></td>
<td></td>
<td></td>
</tr>
<tr>
<td>var.41 1.2866</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약어설명: var.no는 응답 합영의 비호일.

간호학자들의 생명에 대한 태도 유형은 응답자들이37개의 생명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동의하는 정도 및 반대하는 정도의 표준 점수(z-score)를 통해 알아 보았다.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7개 진술문항 가운데 인지적제량 (factor loading)이 높은 항목 중 가장 크게 동의하고 있는 것(z-score가 +1 이상인 의견항목)과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z-score가 -1이하인 의견항목)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TYPE 1의 특성 : 협리적 콘리주의 유형

아이겐치(eigen values)가 9.9506으로서 가장 적절한 유형이이다. 할 수 있는 유형 1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총 14명으로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임상 경험이 없는 학생 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명현상에 대한 판단 경험 여부도 적은 편이다. 또한 종교가 없는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TYPE 1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번호 | 성별 | 연령 | 학력 | 종교 | 임상경험여부 | 병력질병력 | 생명보험료 | 관찰기간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여</td>
<td>20</td>
<td>전1</td>
<td>기독</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5</td>
<td>여</td>
<td>26</td>
<td>전1</td>
<td>기독</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8</td>
<td>남</td>
<td>18</td>
<td>전1</td>
<td>무</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9</td>
<td>여</td>
<td>22</td>
<td>전2</td>
<td>무</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10</td>
<td>여</td>
<td>22</td>
<td>전2</td>
<td>무</td>
<td>음</td>
<td>음</td>
<td>음</td>
<td>음</td>
</tr>
<tr>
<td>12</td>
<td>여</td>
<td>24</td>
<td>전2</td>
<td>무</td>
<td>무</td>
<td>음</td>
<td>음</td>
<td>음</td>
</tr>
<tr>
<td>15</td>
<td>여</td>
<td>23</td>
<td>전2</td>
<td>무</td>
<td>음</td>
<td>음</td>
<td>음</td>
<td>음</td>
</tr>
<tr>
<td>19</td>
<td>여</td>
<td>23</td>
<td>전3</td>
<td>불교</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27</td>
<td>여</td>
<td>23</td>
<td>전3</td>
<td>유</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30</td>
<td>여</td>
<td>20</td>
<td>대3</td>
<td>무</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31</td>
<td>여</td>
<td>21</td>
<td>대3</td>
<td>무</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33</td>
<td>여</td>
<td>20</td>
<td>대3</td>
<td>무</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34</td>
<td>여</td>
<td>20</td>
<td>대3</td>
<td>무</td>
<td>부</td>
<td>부</td>
<td>부</td>
<td>음</td>
</tr>
<tr>
<td>41</td>
<td>여</td>
<td>20</td>
<td>대4</td>
<td>전주</td>
<td>무</td>
<td>무</td>
<td>부</td>
<td>음</td>
</tr>
</tbody>
</table>

*야이설명:
① 학력에서 ‘전’은 전문대학이고, ‘대’는 대학에 재학중임을 의미하여 숫자는 학년을 뜻한다.
② 임상경험 가운데 근무경험은 조무사 경력을 말하며( ), 의 숫자는 근무 년수를 의미한다.
③ 생명보험의 관찰경험 여부의 항에서 집중한 내용은 ‘출산’.
④ 생명보험의 관찰경험 여부의 항에서 집중한 내용은 ‘출산’.

<표 5) TYPE 1이 가장 긍정하거나 가장 부정한 진술문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진술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24</td>
<td>나는 식물인간이자나 가족들에게 진실적으로나 투명적으로 교통을 구체적히 보인다.</td>
<td>1.71</td>
</tr>
<tr>
<td>19</td>
<td>살아있는 것을 그 생명체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어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td>
<td>1.66</td>
</tr>
<tr>
<td>18</td>
<td>인간은 모든 생명의 자아실탐을 할 수 있어 진정한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td>
<td>1.65</td>
</tr>
<tr>
<td>17</td>
<td>생명이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서로 상호언인하여 형성되었다.</td>
<td>1.52</td>
</tr>
<tr>
<td>23</td>
<td>심한 기형상태의 태아라면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게하는 것보다는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더 낫다.</td>
<td>1.49</td>
</tr>
<tr>
<td>29</td>
<td>삶 가망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의를 받아들여 생명정량정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td>
<td>1.40</td>
</tr>
<tr>
<td>30</td>
<td>빌어 먹인 휴고를 앓기까지 지속을 마이하다 한다.</td>
<td>1.18</td>
</tr>
<tr>
<td>31</td>
<td>생명이거나 정형이 참하여 1년이상 죽은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교통서에서 살여하지 보다는 자연적인 메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td>
<td>1.12</td>
</tr>
<tr>
<td>9</td>
<td>생명이라는 것을 도는데 “죽음”이란 단어가 더适宜하다.</td>
<td>-1.03</td>
</tr>
<tr>
<td>5</td>
<td>인간이 죽으면 후세에 대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td>
<td>-1.20</td>
</tr>
<tr>
<td>22</td>
<td>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td>
<td>-1.28</td>
</tr>
<tr>
<td>37</td>
<td>아직은 직관적 치료보다도 종교적 해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말라진 AID를 지나란제대로 되는 사실을 자연이라고 한다.</td>
<td>-1.33</td>
</tr>
<tr>
<td>3</td>
<td>생명은 정신적인 것이다.</td>
<td>-1.39</td>
</tr>
<tr>
<td>33</td>
<td>강간을 당한 후 임신중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인간중절을 하는 것이 틀린다.</td>
<td>-1.42</td>
</tr>
<tr>
<td>35</td>
<td>시험관에서 조작을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므로 내가 하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다.</td>
<td>-1.46</td>
</tr>
<tr>
<td>12</td>
<td>생명은 이생애가 소멸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할 영원불변의 것이다.</td>
<td>-1.64</td>
</tr>
</tbody>
</table>
〈표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유형에 속하는 동물 자들이 가장 독특한 항목은 8개, 가장 반대하는 항목 도 8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명작제보다는 삶의 질 을 증대하여 생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하여 특히 개인이나 가족의 행복, 그리고 당사자의 의지나 판단을 중시함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식물인간상태로 본인은 의지이 없고 타인인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로움을 줄 바에는 차라리 인간이 줄일 것(24번)이,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당사자의 인격능력(19번)이나 자아실현(18번)에 두고 있으면 참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동물자들 은 삶의 질에 여두어서 삶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인간이나 동물원인신중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생명을 정신 과 윤체가 상호연관하여 생성된 것(2번)에 동의하면서도 대체로 인간의 이성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성능 량이 사람은 모든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족자가 가장 늘어 41번 학생의 경우, "인간은 사 고, 창조하는 능력과 주체적인 면을 또한 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조건에서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 서 18번 항목에 가장 착색하고 표기하였다. 또한 30번 학생은 "식물인간상태에서는 점점 아무런 의심도 생울 수 없다"고 하면서 24번 항목을 가장 착색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인간 생명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며, 투자가 대상이 이는 생명가 철저히 경제하지 아니 경계하게 될 삶의 질을 충분한 가치 가지지 않는다는 면 인간 생명의 보존과 보호는 최우선적인 의무로써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Singer(1978)에 따르면 물리주의적 윤리론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유형의 학생들은 생명의 영양능성(12번)을 가장 반대하고 유희사상(5번)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들은 기독교적 생명관이나 불교적 생명관의 핵심을 거부하는 대신 생명과 죽음을 연관짓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은 대체로 전통적 유희적 생명관에 가깝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8번 학생의 경우 "죽음이란 모든 것을 끝으로 끝까지 모든 능력을 발휘해 보아야 만족하게 될 것" 이기 때문에 26번 항목에 가장 착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1번 학생의 경우에도 "죽음은 토론의 의미하므로 유희설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또한 생명을 자기 묘도로 할 수 없다(22번)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으로써 개인의 의지를 중시함을 반영하고 있다. 1번 학생의 경우 22번 항목에 반대하는 이유로 "인생에는 어쩌기가 있다. 이 기에 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활력있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를 제시하였다. 자기자신을 중시하는 이들은 또한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5번 학생의 경우 "물질적 부가 여가를 간결히 원한다면 필요하다"고 하여 35번 항목을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위하여 합리적 인 판단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레 이 유형의 학생들이 중시하고 있는 것 은 행복이나, 합리적 판단, 자기자신, 개인의 소망, 결과 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 등이다. 이들은 자기자신이 삶의 길에 중요소지이며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높은 수준의 삶의 질에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 형은 "합리적 물리주의의 유형"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2. TYPE2의 특성: 기독교적 이무를 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의 경 우보다 기독교적 생명관이 저배적일 것이 점적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가장 동의하는 항목들은 6개이고 부정하는 항목은 5개였다. 이들은 생명이 이 세상 무엇 까도 마무지 않기 때문에 가상 과거(17번) 하며, 아님에서 증 신 가상 과거의 삶(11번)이며, 창조된 생명 가운데는 인간의 생명이 가장 높다(20번)로 지적하였다. 그리 고 다른 유형의 경우와 달리 생명에 대한 영혼이 있으면 있다(4번)는 대에 동의하였다. 이들 주장은 모두가 기 독교적 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을 놓는 신념로서 가장 고 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들은 따라서 인간의 생명 을 때는 것(30번, 34번)은 이유가 무어이든 반대하였 다. 그리고 생명의 결여 죽음을이라는 것(10번)을 인정하 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신의 창조된 생명을 외부로 인간이 만들 수 있을 가능성(16번)이나 생명의 유희설(5번)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즉 이들은 불교나 유희적 생명관을 하여서 기독교적 생명관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신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신의 신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생명 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신이 아닌 인간이 의외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시각하고 있다.

마지막 이 유형은 생명이 신성이나 결정을 이
우시함으로 외부의 공이론 범주에 속하며 외부가 되는 규칙을 기독교 교리를 두고 있으므로 “기독교적 외부

<table>
<thead>
<tr>
<th>응답자 번호</th>
<th>성별</th>
<th>연령</th>
<th>학력</th>
<th>종교</th>
<th>입상정리부 (사소)</th>
<th>병원입원경험</th>
<th>생명현상의 관점성의 비</th>
</tr>
</thead>
<tbody>
<tr>
<td>2</td>
<td>여</td>
<td>21</td>
<td>전1</td>
<td>기독</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6</td>
<td>여</td>
<td>21</td>
<td>전1</td>
<td>기독</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7</td>
<td>남</td>
<td>19</td>
<td>전1</td>
<td>전주</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14</td>
<td>여</td>
<td>21</td>
<td>전2</td>
<td>무</td>
<td>육(1.5)</td>
<td>무</td>
<td>육</td>
</tr>
<tr>
<td>16</td>
<td>여</td>
<td>21</td>
<td>전2</td>
<td>여호</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body>
</table>
| 18          | 남   | 22   | 전2  | 무   | 육(1)            | 무          | 육                | 소생설
| 20          | 여   | 21   | 전3  | 기독 | 육                | 무          | 육                | 출산, 임종, 소생
| 21          | 여   | 25   | 전3  | 기독 | 육(2)            | 육          | 육                | 출산, 출산, 임종, 소생
| 25          | 여   | 26   | 전3  | 무   | 육(4)            | 무          | 무                | 출산, 임종, 소생
| 38          | 여   | 23   | 대4  | 기독 | 육                | 무          | 무                | 기재하지 않음
| 39          | 여   | 21   | 대3  | 기독 | 육                | 무          | 무                | 출산, 임종, 소생
| 40          | 여   | 22   | 대4  | 무   | 육                | 무          | 무                |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진술 내용</th>
<th>표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7</td>
<td>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이다</td>
<td>2.22</td>
</tr>
<tr>
<td>20</td>
<td>인간의 생명은 창조된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높다.</td>
<td>2.08</td>
</tr>
<tr>
<td>11</td>
<td>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td>
<td>1.65</td>
</tr>
<tr>
<td>25</td>
<td>자연스린 죽음을 맞이하기 힘들게 한다.</td>
<td>1.39</td>
</tr>
<tr>
<td>26</td>
<td>생명이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서로 상호연관하여 형성되었다.</td>
<td>1.33</td>
</tr>
<tr>
<td>4</td>
<td>모든 생명에는 약초가 존재한다.</td>
<td>1.25</td>
</tr>
<tr>
<td>30</td>
<td>삶이란 가기의 정도가 섬지하여 1년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고통속에서 생존하기 보다는 차라리 안락사로 향하는 것이 더 나다.</td>
<td>-1.00</td>
</tr>
<tr>
<td>34</td>
<td>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입신증을 하는 것이 더 낫다.</td>
<td>-1.02</td>
</tr>
<tr>
<td>10</td>
<td>생명의 맑은 죽음을이다.</td>
<td>-1.30</td>
</tr>
<tr>
<td>5</td>
<td>인간은 죽으면 후세에 대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td>
<td>-1.38</td>
</tr>
<tr>
<td>16</td>
<td>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td>
<td>-1.73</td>
</tr>
</tbody>
</table>

3. TYPE 2의 특성: 무도적적 의무곤 유형

유형의 구성원들은 4년제 대학 학생은 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일반대생이다.

3번째 유형에 속하는 학생의 수는 단 3명이었다. 이

- 399 -
표 8. TYPE 3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성별</th>
<th>연령</th>
<th>학력</th>
<th>종교</th>
<th>임상경험여부</th>
<th>병원원적경험</th>
<th>생명현상의 관찰경험여부</th>
</tr>
</thead>
<tbody>
<tr>
<td>4</td>
<td>여</td>
<td>20</td>
<td>1</td>
<td>무</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23</td>
<td>여</td>
<td>25</td>
<td>3</td>
<td>기독</td>
<td>육</td>
<td>무</td>
<td>무</td>
</tr>
<tr>
<td>31</td>
<td>여</td>
<td>36</td>
<td>2</td>
<td>무</td>
<td>무</td>
<td>육(2.5)</td>
<td>육</td>
</tr>
</tbody>
</table>

표 9. TYPE 3가 가장 과정이거나 가장 부정한 진술문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진술내용</th>
<th>적함</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인간의 생명은 창조된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높다.</td>
<td>1.98</td>
</tr>
<tr>
<td>26</td>
<td>자연스러운 죽음은 맛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td>
<td>1.93</td>
</tr>
<tr>
<td>17</td>
<td>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자.</td>
<td>1.09</td>
</tr>
<tr>
<td>7</td>
<td>생명을 사랑한 인간의 의지는 무한하다.</td>
<td>1.73</td>
</tr>
<tr>
<td>2</td>
<td>생명이란 정신적·정체적·융합적인 신도 상호연관하여 형성되었다.</td>
<td>1.49</td>
</tr>
<tr>
<td>11</td>
<td>생명은 화성에서 무한 가능 고귀한 신도이다.</td>
<td>1.35</td>
</tr>
<tr>
<td>35</td>
<td>사람의 가족으로 자녀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므로 배가 알고 있는 병무부에게 권유하고 실지 않다.</td>
<td>-1.10</td>
</tr>
<tr>
<td>9</td>
<td>&quot;생명&quot;이라는 말로 오르면 &quot;죽음&quot;이란 단어가 나타나버린다.</td>
<td>-1.32</td>
</tr>
<tr>
<td>23</td>
<td>심한 기형성태의 데아리만 태어나서 불법한 삶을 살게하는 것은 보다는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더 낫다.</td>
<td>-1.55</td>
</tr>
<tr>
<td>18</td>
<td>인간은 보다 높은 자아성취를 할 수 있어야 정신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td>
<td>-1.59</td>
</tr>
<tr>
<td>32</td>
<td>임신후가 원하지 않는 임신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임금임신중절이 허용되어야 한다.</td>
<td>-2.02</td>
</tr>
</tbody>
</table>

3번째 유형의 학생들이 가장 동의하는 문항은 6개이며 가장 반대하는 문항은 5개이다. 이들은 대체로 생명 자체, 특히 인간 생명의 신성성을 제대로하였다.

우선보도 인간의 생명이 창조된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높다(20번)는 것을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지적할 수에서, 인간 생명을 중시하고 이들은 유형 2와 유사하게 생명을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11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임신중절이나 안타라와 같은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같이 유형 3은 유형 2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특이한 것은 자아성취에 비추어 인간의 생명을 평가하는 것을(18번)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유형 1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면담내용에 의하면 "생명은 고귀하므로 더겨도 의도가 뜻하야 더욱 신성하기에, 제일은 사람의 생명의 도 더 좋은 상태에 되도록 노력해 보아야 한다"(4번 학생)는 주장하는 것이 다른 유형과는 다른 특이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캐나다의 법률개정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 of Canada, 1987)가 제시한 바 있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 무한하다(7번)는 학생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즉 Tooley나 Brihaye(1990)가 밝힌 바와 같이 인격체가 생명에 대하여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생명에 대한 육구와 사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이들은 유형 2와는 달리 인간 생명의 신성성 존중의 이 유를 기득교적 교리에 두기 보다는 생명의 존중성 자체나 생명에 대한 인격체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3번째 유형은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무조건적으로 충실해 왓다고 판단할 수있는 태도를 보이고, "무조건적 의무론 유형"으로 명명해 볼 수 있었다.

4. TYPE 4의 특성 : 조건부 의무론 유형

마찬가지로 유형 4에 속하는 학생은 17명이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의 경우보다 임신중결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고 4년제 대학생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학생의 비율도 높다고 하였다.

4번째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동의하는 항목은 반대하는 항목은 각각 6개씩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생명을 고귀한 것(17번)으로 간주하면서
表10 TYPE 4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성별</th>
<th>연령</th>
<th>학력</th>
<th>종교</th>
<th>임해경험여부</th>
<th>병원입원경력</th>
<th>생활현상의 관할경험여부</th>
</tr>
</thead>
<tbody>
<tr>
<td>3</td>
<td>여</td>
<td>22</td>
<td>초1</td>
<td>기숙</td>
<td>무</td>
<td>우(51)</td>
<td>우</td>
</tr>
<tr>
<td>11</td>
<td>여</td>
<td>21</td>
<td>정2</td>
<td>정주</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13</td>
<td>남</td>
<td>22</td>
<td>정2</td>
<td>무</td>
<td>우</td>
<td>무</td>
<td>무</td>
</tr>
<tr>
<td>17</td>
<td>남</td>
<td>23</td>
<td>정2</td>
<td>무</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22</td>
<td>여</td>
<td>25</td>
<td>정3</td>
<td>기독</td>
<td>우</td>
<td>우</td>
<td>우</td>
</tr>
<tr>
<td>26</td>
<td>남</td>
<td>29</td>
<td>정3</td>
<td>무</td>
<td>우</td>
<td>우</td>
<td>우</td>
</tr>
<tr>
<td>28</td>
<td>여</td>
<td>21</td>
<td>대3</td>
<td>무</td>
<td>우</td>
<td>무</td>
<td>무</td>
</tr>
<tr>
<td>29</td>
<td>여</td>
<td>21</td>
<td>대3</td>
<td>무</td>
<td>우</td>
<td>무</td>
<td>무</td>
</tr>
<tr>
<td>32</td>
<td>여</td>
<td>20</td>
<td>대3</td>
<td>무</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35</td>
<td>여</td>
<td>21</td>
<td>대4</td>
<td>기독</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36</td>
<td>여</td>
<td>23</td>
<td>대4(복선)</td>
<td>우</td>
<td>무</td>
<td>무</td>
<td>무</td>
</tr>
<tr>
<td>37</td>
<td>여</td>
<td>24</td>
<td>대4</td>
<td>무</td>
<td>우</td>
<td>우</td>
<td>우</td>
</tr>
</tbody>
</table>

*유신: 종교는 없으나 신의 존재는 믿고있다는 응답

表11 TYPE 4가 가장 금정하거나 가장 부정한 진술문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진술 내용</th>
<th>보조</th>
<th>평수</th>
</tr>
</thead>
<tbody>
<tr>
<td>2</td>
<td>생명이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서로 상호연관하여 형성되었다.</td>
<td>2.06</td>
<td></td>
</tr>
<tr>
<td>24</td>
<td>나는 식물인간성태가 되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면 안락시를 원한다.</td>
<td>2.06</td>
<td></td>
</tr>
<tr>
<td>25</td>
<td>자연스런 죽음은 맞이기까지 환경을 다다래야 한다.</td>
<td>2.00</td>
<td></td>
</tr>
<tr>
<td>7</td>
<td>생명이란 진실이 아니라는 무관하.</td>
<td>1.92</td>
<td></td>
</tr>
<tr>
<td>4</td>
<td>모든 생명에는 영혼이 들려있다.</td>
<td>1.24</td>
<td></td>
</tr>
<tr>
<td>17</td>
<td>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바탕을 없는 가장 고요한 것이 생명이다.</td>
<td>1.17</td>
<td></td>
</tr>
<tr>
<td>29</td>
<td>신 경계가 아닌 환경이 적절한 때, 현재의 특성을 반반으로 생명의 인간으로 형성하기는 없기에 듯이.</td>
<td>-1.18</td>
<td></td>
</tr>
<tr>
<td>33</td>
<td>진실을 담당하던 임해경험편을 제외하고는 인생입증절을 허용하셔서 인련하.</td>
<td>-1.20</td>
<td></td>
</tr>
<tr>
<td>22</td>
<td>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생명은 자기자신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모양.</td>
<td>-1.25</td>
<td></td>
</tr>
<tr>
<td>31</td>
<td>치바마키 환경이 여유가 되어 그 환경의 의료는 실제로 도움이 더가 단순화하거나 가치가 떨어져서 도달할 수 있다.</td>
<td>-1.52</td>
<td></td>
</tr>
<tr>
<td>35</td>
<td>시험관아기로 자녀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므로 내가 알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전혀하고 실지 않아.</td>
<td>-1.73</td>
<td></td>
</tr>
<tr>
<td>16</td>
<td>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td>
<td>-1.74</td>
<td></td>
</tr>
</tbody>
</table>

표11형이 가장 긍정하거나 가장 부정한 진술문의 평균점수는 2.06, 2.06, 2.00, 1.92, 1.24, 1.17, 1.20, 1.25, 1.52, 1.73, 1.74로 나타났다.
시하여 유형 3의 경우와는 달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생명의 오해가 아니라 개인의 의도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배려 능력을 도와주는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은 객관성을 누가하게 된다. 즉 32번 학생은 "타인이 식물인 자아성을 때와 나 스스로가 식물인간이었을 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24번 학생은 "타인이 고름을 받는 것이 심각 때문에" 가장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2번 학생은 "인간은 개개인이 가지는 자아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아성의 정도로 정한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기리"라고 주장하면서 18번 학생은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지적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개별성이 나 주관성 존중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간호사나 기타 의료인이 간호를 내세워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삶의 질의 정도나 대상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인간 생명이 가지는 자아성을 가졌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Singer(1978)에 따르면 의료문헌에 기초한 것이며, 이 점은 유형 1과 대조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이나 타인을 고려하게 되거나 전염병이 될 경우에는 만약사나 자신을 원한다고 하여 생명 종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형 3과는 달리 생명에 대하여 조건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

이 유형에서는 유형 2에서와 같이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16번)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이는 유형 2에 속하는 학생들이 "생명이 하느님이 경련한 선물, 혹은 인간 생명은 신의 희생물"을 그 이유로 제시할 경우는 대조적으므로 "과학이 이루어져야 한다"하더라도 인간의 신비한 전개적인 모습을 만들 수 없으므로(28번 학생), 혹은 "인간의 생명은 자연의 심리에 의하여 인공수정법에 하지 않아야 하며"(29번 학생) 과학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생명은 자연에 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는 완전한 의미의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생명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이며(14번 참见)에 찬찬하다.(32번 학생)"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이 받은 간호교육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충격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생명은 자연에 서 생성되며, 인간의 신학적 인터존성 등을 인하여 과학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과학으로 만能使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신의 경건함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인간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의지는 바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37번 학생)이라고 하여 생명을 소중히 하는 태도는 '생명의 신성성 자체'라고 보고 '소중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욕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점은 유형 3과 유사한 특성으로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복잡성을 분구하는 인간학적 생명에 대한 권리 존중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형은 생명의 동등한 가치나, 인간적인 것, 개인의 존중 등을 모두 중시하며 자기 자신인 경우나 타인인 대상자의 경우에 대하여 각자 더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여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부 의료문헌'이 명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조정부'라는 만은 유형 3의 무조건적 의료문헌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명에 관련된 원칙에 대하여 조건적(conditional)으로 우선시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 상황에서 다른 규칙을 두기에도 되는 것은 시나리오로 소자 사용한 용어인 'prima facie'의 뜻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명에 사용하였다.

5. 모든 유형에서 일치된 의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4개의 유형은 각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총 8개의 문항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문항 가운데 점수가 높은 것은 '표 12'과 같다.

<table>
<thead>
<tr>
<th>표 12</th>
<th>모든 TYPE의 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평균표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번호</td>
<td>진술 내 용</td>
</tr>
<tr>
<td>26</td>
<td>자연스러운 육성을 막으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td>
</tr>
<tr>
<td>2</td>
<td>생명이란 정식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이 서로 상호연관하여 형성되었다.</td>
</tr>
<tr>
<td>9</td>
<td>&quot;생명&quot;이라는 말을 들으면 &quot;죽음&quot;이란 단어가 피어온다.</td>
</tr>
</tbody>
</table>
모든 응답 학생이 공동으로 가장 큰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26.2%)와 생명을 육체화와 정신이 상호관련된 것(24.1%)으로 보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것도 인간의 생명이다’는 이증하고 있으며 간호학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핵심적이라 하겠다. 그러니다면 간호학의 본질은 생명을 단순히 정신적이라는 가, 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육체의 이 모든 것의 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간호 이념,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이념인 죽음을 맞기까지 대상자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대다수 응답자들은 단지 “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죽음을 둘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고만 답하여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이는 간호학생들이 “ 생명”을 그 자체로만 간단할 뿐 죽음의 연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6. 유형 간 상관관계

이상에서 상의 본 4가지 유형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형 2와 유형 3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데 이는 두 유형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유형은 기독교적 생명관을 보이고 생명의 신성성을 절대한다 하더라도 유사성이 크다.

그리고 유형 1과 유형 3간의 상관관계 점수가 가장 낮은데, 이는 유형 1이 생명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 유형 3이 무조건적이며 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유형의 특성상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3) 유형 간 상관관계

<table>
<thead>
<tr>
<th></th>
<th>1</th>
<th>2</th>
<th>3</th>
<th>4</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000</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1.882</td>
<td>1.000</td>
<td></td>
<td></td>
</tr>
<tr>
<td>3</td>
<td>0.114</td>
<td>0.539</td>
<td>1.000</td>
<td></td>
</tr>
<tr>
<td>4</td>
<td>0.406</td>
<td>0.386</td>
<td>0.503</td>
<td>1.000</td>
</tr>
</tbody>
</table>

V. 결론

간호사의 근본 직무는 “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증진하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생명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태도는 간호사의 근본 직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에 윤리교육의 기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사 간호현장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한 학생들이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Q-methodology를 이용하여 생명윤리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생명에 관한 문제와 윤리학 이론, 종교적 생명관, 등을 기초로 하여 37개 질문문을デザイン하고 간호 현장 학생 77명과 4년제 간호대학생 14명 등 총 41명이 작성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명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는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특성을 해석한 결과 유형 1은 합리적 윤리주의 유형, 유형 2는 기독교적 의무론 유형, 유형 3은 무조건적 의무론 유형, 유형 4는 조건부 의무론 유형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이들 유형들 간에는 유형 2와 유형 3간의 유사성이 가장 높았으며(r=0.539), 유형 1과 유형 3간의 유사성이 가장 낮았다(r=0.014).

합리적 윤리주의 유형은 목적론적이며 합리적인 근리주의윤리학에 기초하여 인간의 이성이란 개인의 의식, 자아실탐, 교통의 회피와 행복의 추구를 가장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통적인 윤리적 생명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삶이 짤로 갈 때나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는 학교나 조직,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행동이든, 삶의 가치에 대한 경험이 적은 전통으로 간호 현장의 경험과는 분명하게 겹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유형이 속하는 학생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임에 있어서 경험이 적은 전통으로 간호 현장의 경험과는 분명하게 겹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다른 연구에 의한 것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며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임에 있어서 경험이 적은 전통으로 간호 현장의 경험과는 분명하게 겹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기독교적 의무론 유형은 전통적이며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태도를 거의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즉 대부분 기독교 신자인 이 학생들은 생명의 신성성과 전통성을 지지하면서 이는 생명이 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 주인 하느님이므로 인간에게 생명을 종료시킬 권리를 없으므로 압박이나 인공임산중지가 반대하고 있다.

우조건 허용의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이와 같이 생명 관관관계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으려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적 의료관련 유형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며 기독교적 의료관련 유형과는 유사성을 가진다. 즉 이 유형은 앞의 두 유형보다는 그 특성이 더 명확하다고 하겠다. 이 유형의 속하는 학생들은 유사성이 높은 기독교적 생명관 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신성성이나 존중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며 그 근거는 기독교적이다라 라기보다는 생명의 절대성이 신성성을 지배에 대하여 두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절대성이 믿기에 기독교적 신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유익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와서 기독교적 신인이 사회일반에 스며들어 있음을 점점하게 해준다.

조선부에서 유래된 유형은 앞에서 의료관련 평모적 유사성을 보이지만 있는데(유형 1과의 관관관계 : r=0.46, 유형 2와의 관관관계 : r=0.38, 유형 3과의 관관관계 : r=0.50), 이 유형 속하는 학생들은 생명에 대한 신앙적 신성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높으며 다른 유형들은 생명에 대한 태도가 더 편안적이고 생명관련된 현상의 신성성이나 생명의 관계에 대한 설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 유형이 속하는 학생들은 알츠하이머 증후군 같은 질병의 전염에 대한 심각성이나 불치병이나 식물인간 상태가 가족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으나 더 이상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잘아침유련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임을 지지하였고, 건강관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간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간호대상자들의 개별성이나 주관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전체성과 신비성을 정의한 과학이 야무르 발달하여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삶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에 과학에 생명을 상호작용할 수 없고도 주관적 기독교적 생명관 유형과는 대조적인 근거에서 같은 항목(16번)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이들은 무서운 질병의 전염이나 종환자에 대한 각자의 부담을 감당하여 이러한 목적에서 자신이 태움을 피울하게 되더라도 약자들이 할 수 있지만 타인이 경우에는 강제를 느끼고도 응답하여 이따가이다. 본주의적인 이 유형의 학생들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동을 어느정도 경험하고 있을음을 실패할 수 있다.

이와같이 간호학생들의 생명에 대한 태도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4개의 유형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은 간호학생들의 윤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특히 그 특장이 명확한 하느님의 은혜와 생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극단적으로로 추측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윤용성이 낮다는 간호 수행에 소홀을하거나 나아가서 간호가 인간 자체를기보다 여러 사회적 윤용성을 위한 도구로 전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하하면 기독교적인 두 유형의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유

나 간호사가 대상자 중심이어야 함과 같은 유형은 실제 간호사가 자신의 신념을 대상자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대상자와 자신의 신념이 충돌을 일으킬 경우는 허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간호사가 개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대상자 중심이어야 함을 강요한다면 간호사가 자신의 신념에 충돌하더라도 실수에 발생한 감정에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용적 풍속의 유형과 기독교적 의료관련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 둘 사이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선부와의 무언을 수행하려면 신체적 의무와무조건 의무를 분명히 하는 윤리적 준거가 필요하며 조선부와 의료관련 유형이 근본적인 진단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생명관련적인 보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윤리교육이 요구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부와의 의료관련 생명의 신념에 대한 선택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장이 될 수 있는 간호교사에서 보다 체계적인 의료관련 문제에 대하여 간호사나 대상자 모두에게 적합한 해결을 하려면 간호교육에서 보다 체계적인 의료관련 문제에 대하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유형 4가 이상의 설명과 영향에 있는 다른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은 임상 실태 자체가 간호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기여하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일부도 있어 이는 그 방향을 비교적 일관하여 간호사가 되었을 때 윤리적 감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임이 교육자에게 있음을 보여준 것이 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줄여서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실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가 유형은 모두가 인간의 생명이나 인격적 생명을 중시하고 주관적 중요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동등하다는 주관적 생명관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생
명의 신성성이나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우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유형 3의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중시할 뿐이다. 유형 3과 다른 유형들과의 차이점을 단지 인격요소로서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태어나서 포함하여 흡수하려는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 생명의 범주가 더 넓을 뿐이다. 따라서 4개 유형으로 분류되는 정의 법안을 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더 중시하였으며, 단지 차이점을 인간의 개념이 흡수하려는 범주에서 인간이 아닌 인간의 범주에서 인간이 될 뿐이다.

4개의 유형 가운데의 수용적 특성을 보면 전반의 4개의 경우 중 4개의 경우의 특성을 주목해 볼만한는 건호학적 주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지니며 기본 규칙과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건호학적 윤리강령(Kultgen, 1988)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완전한 권한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필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호학생들의 향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의 유형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든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공동으로 동의함으로써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차 건호사가 되어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돌보게 될 학생들의 기본 태도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김홍구 (1990), *Q예배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이광재, 한규락 (1990), *한국 언론의 사업 윤리의식에*
Abstract

An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Life

Um, Young Rhan* • Hong, Yeo Sh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life through a Q-methodology. A Q-sample was form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views (n=160). The final Q-sample consisted of 37 statements out of an initial 100 statements after consultation with an expert panel and pilot testing. The P-sample consisted of 14 university nursing students and 27 junior college nursing students, which wa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Data were analyzed by the Q-analysis method.

The correlation between type 2 and type 3 was relatively high (r=0.539); that between type 1 and type 3 was lowest (r=0.014).

The first type of attitude was the “rational utilitarian” type. Students in this type valued life relative to the quality of life. They agreed with euthanasia and artificial abortion if the quality of life was threatened. The criteria for their judgement were scientific knowledge and rationality.

The second type of attitude was the “Christian deontologic” type. These students appreciated the sanctity of life according to Christian dogma. They disagreed with euthanasia and artificial abortion. And they disagreed strongly that life should be created by scientific development, because only God creates life.

The third type of attitude was the “unconditional deontologic” type. These students agreed with the sanctity of life, not from Christian belief but from belief in the sanctity of life.

The final type of attitude was the “prima facie (conditional) deontologic” type. These students appreciated the value of life and humanity. They expressed concern for others’ life and suffering. They do not want to afflict others with their own miseries. This group showed a dual value system toward themselves and others. So they experience conflict between their concern for their own and others’ conditions. These nursing students’ values may have been influenced by their clinical experience in hospitals and other nursing fields.

Through this study, we may real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nursing ethics for discussion of ethical conflicts and to support ethical nursing practice.

* Nursing Department, Seoul Health Junior College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